

Nr. 552 (2024 - 07-08)

피정



Licht und Salz

피정

편집부

계절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우리 앞에 성큼 당도해 있습니다. 시나브로 여름의 한창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한여름이 되고 날씨가 무더워질 때면 우리는 피서를 갑니다.

일상의 무더위속에 고갈된 나의 힘은 시원한 바다바람, 푸른 숲의 그늘 속에서 다시 조용히 차오릅니다. 후덥지근한 열기속에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던 얼굴에도 그제서야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뉘약별 아래에 찌푸려진 얼굴로만 보았던 세상이 한결 편안해 졌습니다.

후덥지근한 일상에서 조금 떨어져 나 자신을 살피는 한 여름의 피서, 그리고 세속의 소음과 근심속에서 벗어나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피정은 참 많이 닳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여름의 피서후에 더위를 견디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지니게 되듯이, 고요히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묵상과 기도의 피정 후에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이번 여름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속에도 시원한 바람과 싱그러운 숲향기가 코끝에 맴도시길 기도합니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수난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5월 30일 Fronleichnam 미사

피정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박경하 세실리아 공동체 실장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

공소글 / 장호선 레오



2024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설 (Neujahr)

3,4월 세례 (Taufe)

5,6월 승천 (Himmelfahrt)

7,8월 피정 (Exerzitionen)

9,10월 수확 (Ernte)

11,12월 이웃 (Nachbar)



5월 5일 미사 후 어버이날 행사 1



5월 5일 미사 후 어버이날 행사 2

신앙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은총의 자리 '피정'

박경하 세실리아 공동체 실장님 (Gemeindehelferin)

*이번 호 사제와 함께는 신부님을 대신하여 박경하 세실리아 실장님께서 좋은 글을 나누어 주십니다.

일상에서의 떠남

여름이면 많은 이들이 휴가를 떠난다. 우린 일상을 잊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 여행이나 스포츠 등등 다른 것에 집중하며 즐거움을 찾는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떠나는 이 여행에선 바쁜 일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속깊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 대화에 더 집중하게 된다. 함께 나눈 대화로 인하여 상대방을 더 알아가고 이해하며, 서로 더 가까워짐을 느끼게 된다. 피정도 마찬가지로 바쁜 일상 속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든 우리가 일상에서 떠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닌가 싶다.

피정이란?

피정이란 피세정념(避世靜念) 혹은 피속추정(避俗追靜)의 줄임말로 '세상을 피해 고요하게 마음을 지닌다', '세속을

피해 고요함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독일어로는 „Exerzitien“이라고 불리는데, 라틴어 „ex-ercere“에서 비롯되었고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연습하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피정은 곧 일상을 떠나 기도와 묵상에 집중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을 찾는 일이다. 피정의 기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광야로 떠나 40일간 단식하며 기도하신 행적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사막으로 광야로 떠나 기도를 했고, 성 이냐시오 로올라가 영신수련이라는 책에서 피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면서 피정은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확산되었다.

나의 피정체험

내게 가장 인상깊었던 피정중 하나는 우리 본당에서 튕징(Tutzing)으로 떠났던 피정이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독일로 이주하고 삶의 많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기에 떠났던 피정은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다. 피정 첫날 시작기도를 하며 가



2024년 포르투갈 라오스 가족 여행



Basilika Vierzehnheiligen

하느님의 손 안에서, 시거 코더 - 'In Gottes Händen', Sieger Köder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있었는데 내 몸과 마음이 느껴지는 따뜻함과 편안함. 우리는 누군가의 큰 손 안에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있는 느낌, 그 손 안의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졌고, 마음의 모든 잡음이 사라지면서 매우 조용한 고요함을 느꼈다. 그리곤 진심으로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성사를 통해 온전히 하느님과 가까이 있음을 느꼈다. 처음으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며 점차 주변을 돌아보게 했던 피정 체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모두 안에 살아계심을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삶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뜻을 헤아리며 내 삶의 끊임없는 변화를 의심없이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고난과 힘듦도 주님께 기꺼이 내어보이며 성령께 힘과 용기를 청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지혜롭기를 원하면 너희는 나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을 보고 느끼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경모임, 지혜서 묵상글, 박경하 세실리아).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코헬 7, 14)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20)

초대합니다

저희 바이에른 가톨릭 한인 공동체(뮌헨, 에어랑겐-뉘른베르크, 뷔르츠부르크, 레겐스부르크)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다함께 Diözesanhaus Vierzehnheiligen으로 2박 3일 연합 피정을 떠납니다.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시편 108,1) 라는 주제로 하느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신앙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5월 12일 성모의 날 미사 1



5월 12일 성모의 날 미사 2



5월 30일 Fronleichnam 미사 후 단체 사진 1



5월 30일 Fronleichnam 미사 후 단체 사진 2



6월 9일 본당 성지순례 1



6월 9일 본당 성지순례 2

어느 여자 사형수의 이야기

전영민 수산나

이 엄청난 사건은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소나라는 여인은 어느 한 커플의 자동차에 합승을 하고 뒷자석에서 자고있었다.

공교롭게도 소나라 깊은잠에 빠져있는 동안 경찰의 감시에 걸린 것이다. 결국에는 두 경찰이 총에맞아 죽었다. 그 살해자들은 죄를 그녀에게 덮어 씌우는 것에 성공을 한 듯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소나라는 불시에 사형수가 되었고 어처구니 없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형국이 되었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억장 무너질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것이다.

지옥같은 암흑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질식할것 만 같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무언가가 꼭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

깊은 숙고 끝에 소나라는 다시한번 자신의 마음을 수습 한 다음 큰 결론을 내린다. 갇혀있는 몸으로 언젠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의

짓대로 볼 필요가 없다. 언제 지나나 스스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그녀의 목숨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다'라고 이런 주어진 참혹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선택의 여지는 오로지 그녀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 보다도 고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터득한 것이다. 더 이상 갇혀있는 희생자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하여 최선의 길로 활용하겠다고 자신의 결정을 굳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감방을 성전으로 변화시켰다. 명상과 기도, 요가를 병행 하면서 피눈물 나는 의지로 조금씩 지나간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전에 한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공포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서 어떤 것에도 정신적인 권리를 박탈 당할 일에 조종 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몇년이 흐른뒤, 지인들의 주선으로 그 사건은 다시 검증 되었고 소나라는 무죄라는 판정을 받았다. 소나라는 지금, 국제사면 조직기구의 대사로 활동 하면서 자신 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을 위해 일 하고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체험기를 책으로 내었다고도 한다.

이런 것을 두고 전화위복이라고 할 것이다. 개척지로 만들어 내기에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황무지를 일구어낸 억척스럽고 대담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자주 주어진 좋은 상황의 가치를 모르고 스스로 얽매어 있다. 죽을병에 걸려 투병중인 사람들에게만 건강만이 유일한 소원인 것에 비해 건강한 사람들은 천만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다. 건강할 때 건강함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



6월 9일 본당 성지순례 중 미사 1



6월 9일 본당 성지순례 중 미사 2



6월 9일 본당 성지순례 중 미사 3

<반항의 집안도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Ⅳ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 2-5

2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3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 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 왔다.

4 열굴이 뻗뻗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5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6월 3일—6일 유럽 한인 사목자 회의 (베를린 한인 성당) 1



6월 3일—6일 유럽 한인 사목자 회의 (베를린 한인 성당) 2

그냥 한 번 다시 가볼까요?

장호선 레오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오늘도 해가 진다.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것이다. 나는 내일 다시, 어쩌면 조금 후에도 흥미가 생기는 일을 찾아 이것저것 해 볼 것이다. 주변에는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인생의 동반자와도 같은 유튜브의 콘텐츠들이 그렇고, 요즘 틈만 나면 커대는 모바일 게임이 그러하다. 어쩌면 얼마 전 지인이 다녀왔다는 여행지 정보를 찾아보는데 나의 잉여시간들을 열정적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아! 너무 바쁘다. 누군가 24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던가. 하루가 26시간이라면 2시간 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알찬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

물론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하늘을 보며 멍을 때릴 때도 많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상상들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있으면 어색했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게 되었다. 나의 일상에 약간의 변화가 이제 필요할지도 모른다.

(Vida Nueva)’라는 피정에 참석했었다. ‘피정’이라는 이름부터 나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지만 잔소리 많던 성당 동생이 주말에 딱히 특별한 일도 하지 않으니 주말 한 번 정도는 다르게 살아보라며 반강제로 나를 등록시켰었다. ‘비다누에바’는 ‘새로운 삶’이란 뜻이었다.

장소는 차로 조금 떨어진 산골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었었고, 막상 사용하고 싶어도 네트워크가 너무 약했었다. 처음 들어간 장소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함께 앉도록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다. 떠드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지겨워지면 앞에 놓여있던 애꽃은 기도서만 자꾸 읽어뒀었던 것 같다. 30분 남짓의 시간이었는데 상당히 길게 느껴졌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던 사실이, 사람들을 방치했던 것도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 시간 같은 것이라고 했다. 덕분에 그랬는지, 피정에 조금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한국에 있었을때 일이다. ‘비다누에바

피정은 3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동

안 여유롭게 생각할 시간들이 자주 주어졌다. 덕분에 남은 시간 동안 창 밖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들도 할 수 있었다. 평상시에 시간이 남을 때마다 으레 핸드폰을 만지는 나에게 이러한 순간들은 제법 힐링이 되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도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았고, 함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다. 누군가의 신앙에 대한 생각과 경험들을 들으며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도 있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며, 시험에는 들게 하시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 뒤에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나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를 때, 나에게 있던 무장이 해제되는 기분을 느낀다. 평상시보다 하느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기도 한다.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피정을 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몇년 전에 한 번 간 것이 나의 10년간의 독일생활 중 유일한 피정이었다. 이제 나의 일상은 다시 평상시와 같이 바쁘고 여유가 없다. 어쩌면 지금이 다시 그 좋았던 순간을 계획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한 번 다시 가보려고 한다. 주님과 함께 했던 피정에 ...

피정을 마치고 나중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다. 밤에 다 같이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 속으로부터 벅찬 감동이 차올라 약간 눈물이 나올 것 같기도 했었고 피정을 마치고 나올 때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약간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피정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피정 때마다 다르지만 그 느낌들이 항상 좋다고 한다. 그래서 나를 등록시켰던 성당 동생도 나에게 그렇게 한 거라고 했다.

이후로 가끔씩 피정에 참여했었다. 나에게 그 이유를 찾자면, 피정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서일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하루종일 기도하고, 나눔하고, 신앙에 대해 생각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함께 생활 성가를 부





5월 25일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Maiidult 축제 참여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20,1-3.7-8.12-17

그 부럽기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2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3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2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13 살인해서는 안 된다. 14 간음해서는 안 된다. 15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16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17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6월 22일 레겐스부르크 가정미사 1



6월 22일 레겐스부르크 가정미사 2



6월 8일 에얼랑엔—뉘른베르크 공소 창립 33주년 기념미사 및 식사 1



6월 8일 에얼랑엔—뉘른베르크 공소 창립 33주년 기념미사 및 식사 2



6월 8일 에얼랑엔—뉘른베르크 공소 창립 33주년 기념미사 및 식사 3



6월 8일 에얼랑엔—뉘른베르크 공소 창립 33주년 기념미사 및 식사 4



6월 9일 본당 성지순례 단체 사진

2024년 바이에른 가톨릭 한인 공동체 연합 피정 안내

- 일시: 10월 4일(금) 17시 - 6일(주일) 13시
- 장소: Diözesanhaus Vierzehnheiligen
(Vierzehnheiligen 9, 96231 Bad Staffelstein)
- 주제: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시편 108,1)
- 참가비: 1인당 100 유로(청년: 80 유로)
- 참가신청: 3월 31일 까지, 각 공동체별로 신청

바이에른 4개의 공동체(뮌헨,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뷔르츠부르크, 레겐스부르크)가 함께 모여 피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미하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정(避靜)이란 피세정념(避世靜念), '일상/세상을 피해 고요히 생각한다, 고요함에 머문다'는 뜻으로 '하느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참가비 설명: 원래 소요비용은 2인실 기준 1인당 163.8유로(숙소 2박 107.8유로 + 식비 4식 51.8유로)이나 뮌헨 교구의 지원과 찬조(Spende)를 받아 보충하는 것으로 하여 위 금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인실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신청비에 20유로가 추가됩니다.
(원금액: 1인실 기준 1인당 183.8유로)
- ⇒ 신청자가 확정된 이 후 일정과 세부사항(차량이동, 준비물 등)에 대해서는 각 공동체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신청자격은 15세 이상이지만, 혹 15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참가하기를 원하시면 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아이들의 참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름부르크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erweg 6A, 93051 Regensburg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 편집부

김수연 아가타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